

# 복식에 나타난 타투 룩(Tattoo Look) 패션의 표현 특성

윤 정 혜 · 유 영 선\*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 of Modern Tattoo Look Fashion

Zeong-Hae Yun · Young-Sun Yoo\*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Doctorial course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1. 2. 16 투고)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attoo look in modern fashion from the aspects of 'expression techniques' and 'aesthetic properties'.

Tattoos are one of the body decoration which have been continued for a long time all over the world and have contained various meanings in : invocation, symbolization, solidification, exotic tastes, and body decoration.

While tattoos have been progressed for the past time, they have been enlarged into body painting, make-up, and even into body art. Besides, their technical skills and equipments have been also developed. Therefore, tattoos are neither tabooed nor restricted in lower class, such as gangsters, bickers, prostitutes, etc., any longer. They are showed in everywhere of our society, running on the fashion. Specially, in fashion, they are shown through the 'tattoo look' designed by talented fashion designers. Futhermore, tattoos are one of the things which have gotten a new value under the Post-modernism and the turning of the century.

The various tattoo looks in modern fashion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expression techniques : the use of see-through, reappearance of primitive body-decoration, application of tattoo patterns, application of street styles' tattoo patterns, make-up & body painting. And, they are also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aesthetic properties : Exoticism, Eroticism, Primitivism, and Grotesque.

Key Words : Tattoo(타투), Tattoo Look(타투룩), Modern Fashion(현대 패션)

## I. 서론

현대의 예술가들은 물질문명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 황폐화되고 소외된 현대인의 정신세계를 위로할 수 있는 모티브를 '원시로의 회귀'라는 주제에서 찾고 있다. 원시생활 속에 감추어진 원초적인 생명력을 찾고, 그곳에서 창조적인 영감과 모티브를 제공받아 인간 본성의 필연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생명력 있는 예술을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원시적 신체장식인 타투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시켜가고 있으며, 적극적인 타투 애호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피부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의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

신체는 우리의 영혼과 실체를 연결하는 유기체이자 자아와 사회를 투영시키는 매개체로서, 인간은 '원시'라고 부르는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결혼, 존엄, 보호, 기원 등을 위해 끊임없이 신체를 장식해왔으며 아름다움을 위한 신체장식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초기의 타투는 제사장이나 최고의 권력자만이 지닐 수 있는 특별한 상징이었으며, 두려움을 쫓기 위한 아마존 원주민의 부적이었다. 또한 자학적 쾌감을 통해 두려움을 해소하고자하는 이들에게는 치료제였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교도소의 수감자들의 범죄의 상징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타투는 세기의 전환점에 이르러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로트먼(Victoria Lautman)에 의하면, 현대의 타투는 기존의 천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유일하고 영구적인 무엇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소망에 의해 나타난 상징적 표상<sup>1)</sup>이자 유행의 일면으로 간주되고 있다.

패션에서 타투의 유행은 일본의 전위파 디자이너들인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타투가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등장하여, 1991년 S/S Promostyl의 패션 테마로 예측되기도 하였다. 이어서 발렌티노(Valentino),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등, 1990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타투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됨에 따라 현대 패션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타투룩의 표현경향을 분석함으로써 1990년 이후에 나타난 타투룩 패션의 표현방법과 심미적 특성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미래 패션 디자인 영감의 새로운 원천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타투에 대한 이전 연구와 관련 서적을 통해 그 개념과 심리적 의미를 살펴보고,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타투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분석은 Collections, Collezioni, Fashion News, High Fashion, 流行通信 등의 패션 전문지에 나타난 작품들을 사진 촬영하여 사용하였다.

## II. 타투의 개념과 역사

타투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지구 곳곳에서 각기 다른 형태와 내용을 담은 채 생명력을 지니온 신체장식으로 레비 스트라우스(Levi Strauss)는 타투를 자연에서 문명으로의 전이를 보여주는 일면(一面)으로 설명하였다. 즉, 타투를 통해 보여지는 수많은 점과 선, 그리고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들은 자신의 역사를 말하고자 하는 인간 욕구의 표현인 것이다.<sup>2)</sup> 본 장에서는 복식에 나타난 타투룩 패션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타투의 개념과 방법, 타투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념과 방법

1769년, 제임스 쿡(James Cook)에 의해 처음 영어로 소개된 '타투(tattoo)'는 각 나라로 전해져 'tatouage(佛)', 'tatowirung(獨)', 'tatouaggio(伊)'로 각각 불리고 있으며<sup>3)</sup>, 일본에서는 '文身(ぶんしん)' 또는 '入れ墨(入れずみ)'로 불리고 있다.<sup>4)</sup> 이 외에 우리 나라에서는 '자문(刺文)<sup>5)</sup>' 또는 '자청(刺靑)<sup>6)</sup>'이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전적 개념의 타투는 '문신(文身)' 또는 '문신하다'의 의미에 앞서 '둥둥 경고하는 소리' 그리고 '톡톡 두드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sup>7)</sup> 그 어원은 원래 폴리네시아 군도(群島)의 타히티(Tahiti) 언어 중에서 '예술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tatau'에서 유래한 것이

다.<sup>8)</sup> 타투는 대개 피부나 피하조직에 상처를 내고 물감을 들여 글씨나 그림, 무늬 등을 새기는 작업을 일컫지만 간혹 '반흔형성(cicatrizacion)'을 포함하기도 한다.<sup>9)</sup> 한편, 타히티어의 'tatu'와 의미가 같은 아랍어의 'dapp'을 살펴볼 때, 이 단어가 '날카롭고 뾰족한 도구를 얼굴에 대고 작은 방망이를 이용하여 그 도구를 때리는 기술'을 함께 의미함을 알 수 있다.<sup>10)</sup>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타투'라는 단어가 서구에 소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저 'prick'이나 'mark'로만 알려져 있었던 타투는<sup>11)</sup> 현대로 접어들면서 몸에 직접 새기는 타투 본연의 의미와 더불어 피부를 미적으로 표현하는 '피부 장식(decorated skin)'에 해당되는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 '메이크업(make-up)', '바디 프린팅(body printing)'과 '씰(seal)'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바디 아트(body art)'에까지 이르는 넓은 의미로 다루어지기도 한다.<sup>12)</sup>

현대 패션에서는 타투가 전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타투룩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타투룩이란 '타투를 악센트로 하는 패션을 총칭'하는 것으로, 대개는 타투가 인체에 직접 그려지거나, T-셔츠에 프린팅됨으로써 나타나는데,<sup>13)</sup> 바디 페인팅이 전체적인 것인데 비해 이것은 부분적이다.<sup>14)</sup> 특히, 최근 일회성으로 개발된 여러 가지 문양의 타투씰(tattoo seal)은 오늘날 피부에 직접 행해지는 바디 메이크업(body make-up) 개념의 패션 액세서리로서 타투룩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장식 가운데서도 가장 동적인 방법인 타투는 그 기술과 재료의 변화에 따라 상흔, 문신, 바디 페인팅, 메이크업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상흔'은 피부색이 짙은 종족에게 나타나는 색소를 이용하지 않는 타투 방법으로<sup>15)</sup> 인위적으로 낸 상처가 아무는 동안에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우묵한 자국의 '반흔(癍痕) 타투'와 장식 효과가 두드러지는 '켈로이드성 상흔'으로 나뉜다.

일반적인 '타투'로 알려진 문신은 피부 밑으로 색소를 넣어 무늬를 영구히 새겨 넣는 것으로 피부색이 옅은 종족들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문화권에서 나타난다.<sup>16)</sup> 예전에는 신체의 해당 부위에 원하는

문양을 그린 뒤, 색소를 적신 바늘로 문양의 윤곽을 따라 찌르거나 물감을 묻힌 실과 바늘로 문양의 윤곽을 따라 꿰매어서 완성하였으나,<sup>17)</sup> 현대에는 그 대부분이 일렉트로닉 타투머신(electronic tattoo machine)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타투는 과거에 비해 색상과 문양이 다양하며 표현 기법도 더욱 정교하다.

한편, 현대의 타투는 타투펜, 바디 페인팅용 물감, 반짝이 등을 이용하여 보다 드라마틱하게 연출됨으로써<sup>18)</sup> 오히려 바디 페인팅에 가까운 특징을 지닌다. 1960년대에 전위적인 예술활동의 하나로 나타난 바디 페인팅은 특유의 자유로운 구성과 연출이 가능하고,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흥미로운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표현의 세계가 바로 인간 그 자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예술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sup>19)</sup>

그리고 최근 메이크업계에서는 타투가 메이크업 트렌드의 하나로 등장함에 따라 타투를 통해 세기 전환점의 특징들을 시각적으로 선사하는 계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바디 페인팅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밖에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타투씰(tattoo seal)은 원하는 그림을 잘라 물에 적신 후에 붙이기만 하면 일회성 타투가 완성되는데, 이것은 17-18세기 유럽의 상류 귀족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던 패치(patches)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현대의 타투씰은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 문양을 바꿀 수 있어 전통 타투의 영원성(permanency)을 변화시켰다.

## 2. 역 사

원시에서 현대에 이르는 타투의 흐름을 간략히 살펴볼 때,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되는 벽화나 미라를 통해 타투가 우리가 원시라고 부르는 훨씬 이전부터 기원, 결속, 장식, 상징 등의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중세에 이르러 서구에 기독교가 전파됨에 따라 타투는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되었고, 그 결과 서구에서는 타투가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타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으며, 문헌에 따르면 심지어 십자군 원정 중에도 원정군을 구별하기 위해 타투가 사용되곤 했다.<sup>20)</sup>

서구의 타투가 기독교 전파와 함께 사라졌던 반면, 일본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국가에서는 오히려 타투가 피부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예술의 하나로 발전되었다. 특히 일본은 타투 역사상 최고의 타투 예술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었고,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서구인들에게 충격과 신선함을 선사하게 되었다.<sup>21)</sup>

타투에 관한 '금지'와 '발전'이라는 동서양의 상반된 미의식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교차점을 찾게 되는데, 이 시기는 제임스 쿡을 비롯한 서구의 수많은 탐험가들이 동양과 태평양을 탐험하던 때로 역사적으로는 서구에 타투가 재도입되는 시기이다. 당시, 탐험가들은 타투를 새긴 원주민들을 직접 서구로 데려가기 시작했고, 서구인들은 그들로 인해 놀라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국적 취미와 결합되어 일기 시작한 타투에 대한 호응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가져왔고, 이후 20세기에 이르는 동안 타투 업계에서는 타투 아티스트들에 의한 새로운 타투 도안과 일렉트로닉 타투 머신과 같은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타투가 또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연이어 나타난 타투에 대한 엘리트 계층의 반감으로 인해 범죄, 성병, 도덕성 결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코스메틱 타투(cosmetic tattoo)의 유행을 타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후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엄습하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카니발이나 서커스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 몸에 타투를 새김에 따라 그 선입견과 인식이 또 다시 전락하였다.<sup>22)</sup>

이처럼 수용과 거부, 반복된 순환을 거친 타투는 반사회적인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걸쳐 재평가되었고, 그 결과 타투에 관련된 기사들이 여러 간행물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타투 고객층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 시기는 패션사에 있어서 히피, 스킨헤드 등과 같은 반사회적 하위문화 그룹들이 그들만의 독

자적인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던 때였다. 당시의 영컬처를 주도했던 젊은이들은 타투를 통해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반항심을 표현하고, 동료들과 동일한 타투를 새김으로써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그 결과, 타투는 안티 패션적 특성을 지닌 요소로 스트리트 스타일에 도입되었고, 이후 스트리트 스타일이 하이 패션으로 유입됨에 따라 타투도 하이 패션의 한 요소로 도입되었다.

타투가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1960-197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타투 아티스트들의 공도 크다. 이전의 아티스트들과 달리, 그들 중 많은 수가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써 타투를 나름의 역사와 미학을 가진 완전한 형태의 독립 예술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체를 타투를 위한 단순한 화폭이 아닌 움직임과 형태를 고려해야만 하는 완전한 삼차원의 물체로 인식하였다.

패션에서의 타투는 20세기 중반 스트리트 스타일을 통해 도입된 이후, 스트리트 스타일의 대중화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여 오늘날의 타투룩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으며, 전위적인 디자인을 시도하는 패션 디자이너에게는 그들의 작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특징적 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최근의 일회성 타투셀 개발로 인해, 타투는 '영구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오히려 바디 페인팅용 물감이나 메이크업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이 원할 때마다 다른 무늬로 바꿀 수 있는 일회성의 현대적인 패션 아이템으로 변해가고 있다.

### III. 타투룩 패션의 발생 배경

타투룩은 세기의 전환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에 의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으며 등장하게 된 패션형태로 그 이면에는 인간의 몸을 자유로운 표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변화된 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정신적 흐름은 패션에까지 유입되어 노출이 현대적인 패션 요소로 수용되었고,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노출을 위한 노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노출된 피부에 행해지는 원시적인 바디 페인팅과 타투가 현대적 감각 아래 예술과 접목되어짐에 따라, 타투룩은 타투의 회귀성

과 비서구적인 의상 양식과의 관련 속에서 현대 패션의 이국 정서를 특징짓는 한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편, 예술 전반에 걸쳐 '추(醜)의 미'에 대한 이해가 확대됨에 따라 패션에서는 타투가 하위 문화적 정체감을 드러내고 거리문화적 발상의 스트리트즘(streetism)을 대표하는 바디 테크닉으로서 반미학적 패션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타투룩 패션의 발생 배경을 미의식의 변화, 에로티시즘의 부각, 이국정서의 도입, 스트리트 스타일의 대중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미의식의 변화

세기의 전환기에서 우리는 고도로 발전된 산업사회 안에서 오히려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간의 갭(gap)에 따른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sup>23)</sup> 그 결과,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은 붕괴 위기에 놓여지고 현대인들은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문화·예술에서는 지나간 것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復古적 경향이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에 억압되었던 것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등장하게 되었다.<sup>24)</sup>

그 중에서도 인간의 몸에 대한 인식은 이성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는 종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는 매개로서의 이해가 확대되고 있다. 기독교적 윤리에 근거를 두고 발전해 온 인체에 대한 기존의 미의식은 1960년대에 이르러 당시 젊은이들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의식 표현과 함께 '인체의 노출'이라는 커다란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변화된 미의식은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 1990년대가 되면서부터 인체는 이전의 모든 금기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자유로운 표현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흐름이 패션에까지 유입되어 노출이 현대적인 패션 요소로 수용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체는 정신에 종속되어 있는 부차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신과 맞물려 완성되는 독립된 실체로서 몬드리안에게서, 가부키 연극에서, 또는 아프리카 원시부족의 가면에서 받은 다양한 영감들을 담아내는 화폭이자 자신의 감정과 영감을 표현하는 캔버스로 인식되고 있다.<sup>25)</sup>

### 2. 에로티시즘(Eroticism)의 부각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에로티시즘은 복식을 비롯한 예술의 전 영역에 걸친 특징적인 경향으로 다루어져왔다. 그 예로 미술에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에로티시즘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며, 인간 의식의 새로운 조형적 전개를 모색하는 예술작품에서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성(性)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다. 그리고 패션에서는 성적 매력을 지닌 신체의 일부를 장식함으로써 눈에 잘 드러나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은폐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에로스 욕구를 만족시키기도 한다.

복식을 통한 신체의 노출은 에로티시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19세기의 여성들 사이에 스포츠가 보급됨에 따라 시작된 사지(四肢)의 노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가 점차 더해져 불과 80년도 못되어서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거의 나체에 가까운 형식이 시도되었다.<sup>26)</sup> 그리고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종래에 금기시되었던 인체표현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노출이 훨씬 더 자유롭고 대담해졌다. 특히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신체의 노출은 세기말적인 장식성의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 대담하고 관능적인 스타일로 인체의 노출 부위를 확장시켜, 때로는 전라(全裸)의 상태에서 부분적인 바디 페인팅을 하는 등의 '대담한 섹스 존(sex zone)'으로 진행되고 있다.

타투는 노출된 피부에 직접 행해지는 신체장식의 하나로서 신체가 노출될 때 비로소 시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리고, 성적 매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이성의 관심을 얻으려는 목적의 장식적 타투는 이미 그 역사가 오래다. 따라서, 타투는 장식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에로티시즘적 표현 방법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 3. 이국정서(Exoticism)의 도입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가 산업화되고 기계화됨에 따라 인간의 정신은 사회적 병폐에 따른 일종의 공황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고, 정신과 물질 사이의 괴리감은 세기 전환점에서의 허무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지구의 생태학적 위기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인간과 하나뿐인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하였고, 현대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을 지배하기에 이른 기계문명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술에서는 문명의 굴레를 벗어나 원시와 자연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게 되었고, 패션에서도 자연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복식의 형태미나 아프리카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원시성을 추구하는<sup>27)</sup> 이국정서의 복식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자연상태를 표현하려는 복식의 대다수가 원시적인 자연적 요소를 통해 드러났다.

한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패션에서는 용이나 나비, 대나무로 대표되는 동양적 상징물들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복식에 도입됨으로써 다양한 오리엔탈리즘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야만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왔던 바디테크닉이 안티 패션적 요소인 동시에 동양적 정취를 나타내는 이국적 요소로서 현대 패션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패션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한 것과 이국적인 것 사이의 상관관계와 긴장관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국적인 모티브의 조합을 통해 나타나는 바디테크닉은 사회관습 내에 스틸이나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sup>28)</sup>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타투는 199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그 회귀성과 비서구적인 의상 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패션의 이국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 4. 스트리트 스타일(Street Styles)의 대중화

스트리트 스타일의 대중화는 1990년 이후, 예술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더럽혀지고 불품없는 것에 대한 논의의 영향이 패션에 반영된 것으로, 기존에 아름답게만 느꼈던 의복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안티 패션이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 등장한<sup>29)</sup> 무드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패션 스타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와 창조의 밑바탕으로 그 대중적 이해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타투는 하위문화적 정체감을 드러내고 거리문화적 발상의 스트리트리즘(streetism)을 대표하는 바디

테크닉으로서 저항, 해학, 가벼움, 욕구발산 등의 상징을 내포한다. 타투는 스킨헤드, 히피, 펑크, 헤드뱅어, 헬스 앤젤스, 퍼브, 라커 등의 '직접적인 신체 노출'과 '반미학적 복식착용'을 특징으로 했던 스트리트 스타일에서 그들의 사회·문화적 저항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반문화(反文化)를 지향하는 위반 행동의 일면(一面)이자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항의를 나타내는<sup>30)</sup> 표현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스트리트 스타일의 대중화로 1990년 이후의 패션 스타일에서는 반미학의 스트리트 스타일이 하이 패션에 직·간접적으로 도입되었고, 이것은 전통 타투가 타투룩 패션에 접목되는 실질적 근거가 되었다.

### IV. 1990년 이후의 패션 디자인으로 나타난 타투룩

본 장에서는 타투룩 패션의 표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ollections, Collezioni, Fashion News, High Fashion, 流行通信 등의 패션 전문지에 나타난 1990년 이후 작품들 가운데 타투룩 패션을 보여주는 작품을 사진촬영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타투룩 패션의 표현 방법은 시스루(See-through) 활용, 원시적인 신체장식의 재현, 타투 패턴 활용, 스트리트 스타일의 타투 문양 응용, 메이크업과 바디 페인팅으로 나타났으며 미적특성을 이국 정취(Exoticism), 에로티시즘(Eroticism), 원시성(Primitivism), 반미학(Grotesque)으로 나누어 다시 분석하였다.

#### 1. 표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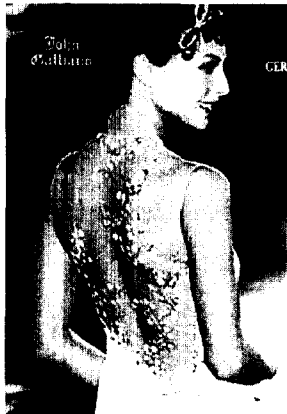
##### 1) 시스루(See-through) 활용

패션 디자인에서 보여지는 타투룩은 대부분이 시스루 소재를 통해 표현되는데, 이것은 인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시스루 소재가 문양을 신체에 직접 새겼던 전통 타투의 시각적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축성이 높은 시스루 직물일 경우, 직물에 사용된 모티프가 인체에 밀착됨에 따라 실제의 타투를 연상케 하는 시각적 효과가

높아지고, 원시적인 에로틱 무드도 함께 전달된다. 몬드리안의 회화작품의 모티프를 여체의 등에 섬세하게 새긴 <그림 1>의 타투 작품과 비교해볼 때, 존 갈리아노가 '98 S/S에 내놓은 <그림 2>의 작품은 모델의 등이 드러나도록 디자인된 이브닝 드레스에 신축성이 높은 시스루 직물을 사용하여 나비와 벚꽃을 표현함으로써 마치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은 실제의 타투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몬드리안 회화 모티프의 타투  
(The New Tattoo, p.6)



<그림 2> John Galliano  
(Book Moda, N.18, p.145)

## 2) 원시적인 신체장식의 재현

타투룩 패션에서는 종종 과거에 피부를 대상으로 행해졌던 직접적인 신체장식이 그대로 재현됨으로써 원시적인 자연미를 전달하기도 한다. 즉, 상흔과 같

은 신체장식의 외형적 특성을 신축성이 높은 직물의 텍스타일 모티프로 사용하여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아프리카 원주민의 토속적인 원시성을 전달한다.

<그림 3>의 켈로이드성 상흔은 문양과 윤곽이 뚜렷한 신체장식의 하나로 주로 피부색이 짙은 원시 종족들 사이에서 행해졌다. 발렌티노(Valentino)는 '93 S/S 컬렉션에서 <그림 3>의 상흔 모티프를 사용하여 <그림 4>의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신축성이 높은 시스루 직물에 사용된 텍스타일 모티프가 실제의 상흔과 동일하고 모델의 피부색도 짙어서, 상흔의 시각적 특징이 그대로 표현되었다. 특히, 모델이 착용한 대담한 액세서리들은 상흔 모티프의 원시적 자연미를 두드러지게 한다.



<그림 3> 켈로이드성 상흔  
(Decorated Skin, p.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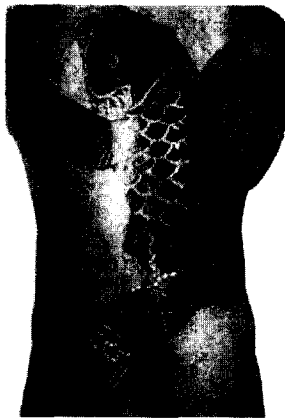


<그림 4> Valentino  
(Fashion News-Tokyo, New York, Seoul, p.36)

3) 타투 패턴 활용

1990년 이후의 타투룩 패션에서는 전통 타투 방법으로 사용되는 타투 패턴이 텍스타일의 모티프로 응용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용, 나비, 잉어, 글자, 전설 속의 창조물 등과 같은 동양의 상징적 모티프들은 타투룩 패션에서 동양 정취를 전달하는 이국적 요소로 활용된다.

1998년, 알렉산더 맥퀸이 수석 디자이너로 있는 지방시(Givenchy)에서는 동양의 '잉어'를 주된 모티프로 사용하여 <그림 6>의 작품을 발표하였는데, 이 작품의 시스투 직물에 표현된 잉어 프린트는 타투 예술의 주제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그림 5>) 동양의 이국적인 정취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림 5> 잉어 문양의 타투  
(Tattoos, p.45)

4) 스트리트 스타일의 타투 문양 응용

1990년 이후의 타투룩 패션에서는 동양 정취의 타투 패턴 외에 하트, 새, 물고기, 꽃, 천사, 십자가 등과 같이 과거의 스트리트 스타일을 비롯한 소외된 집단의 타투에서 주로 나타났던 타투 문양이 텍스타일 모티프로 응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모티프의 대부분이 안티 성향의 폭력성 및 저항성을 반영한다.

<그림 7>은 스킨헤드의 타투로서 신체의 한 부분에 작은 크기로 타투잉 된 것이다. 팜 호그(Pam Hogg)는 이와 같이 단편적이고 크기가 작은 스트리트 스타일의 타투 문양을 사용하여 '91 S/S 컬렉션에서 <그림 8>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은



<그림 7> 스킨헤드의 타투, 1980s  
(Street Style, p.70)



<그림 6> Alexander McQueen  
(Elle Korea, '98, Apr., p.37)



<그림 8> Pam Hogg  
(Collezioni Donna, N.20, p.195)



신축성 높은 직물에 하위 문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형적인 타투 모티프들을 팝아트적인 텍스타일 모티프로 활용함으로써, 전통 타투의 어둡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5) 메이크업과 바디 페인팅

메이크업에 타투가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이후, 콜렉션에서는 모델의 얼굴에 마치 특정 문양의 타투를 새긴 듯한 타투 메이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메이크업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스트리트 스타일의 바디 페인팅과 타투가 안티 패션의 성격을 띤 일회성의 신체장식의 하나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재료에 있어서도 타투펜, 바디 페인팅용 물감, 반짝이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면서 더욱 대담한 연출이 가능해졌다. 그리하여, 타투 메이크업과 바디 페인팅은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와 같이 개성적이고 색다른 컬렉션을 원하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알렉산더 맥퀸이 2000 A/W에 발표한 <그림 9>의 작품에서는 모델의 상반신 전면(前面)에 걸친 대담한 바디 페인팅을 볼 수 있는데, 실제의 타투를 새긴 듯한 검정의 기하학적 바디 페인팅 문양은 눈 아래를 어둡게 그린 모델의 메이크업과 함께 관능적이면서도 원시적인 대담성을 전달한다.



<그림 9> Alexander McQueen  
(High Fashion, 1999 Dec., No. 270, p.182)

2. 미적 특성

1) 이국 정취(Exoticism)

패션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실험 정신과 함께 현대 패션에 도입되고 있는 타투룩은 복식에 이국적 특성을 부여하는 보편적인 요소로서, 그 대부분이 오래되고 전형적인 동양적 정취를 전달한다. 특히, 동양의 상징적 자연물이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타투룩은 문화적 상징을 바탕으로 하는 이국적 취미와 관련이 깊다.

<그림 10>에서 보여지는 대나무는 일본을 비롯한 동양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자연물로 동양인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우아함과 정조의 나타내는 상징물로 여겨져 왔다.<sup>31)</sup> 그리고, 동양 문화와 예술에서는 종종 군자(君子)의 곧은 성품과 강인함을 항상 푸르고 곧게 자라는 대나무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였다. 디자이너 이상봉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대나무의 형상을 텍스타일 및 바디 페인팅 모티프로 활용함으로써 동양적 이국 정취와 강인함을 동시에 전달하였다.



<그림 10> 이상봉  
(Elle Korea, '97, Jun., p.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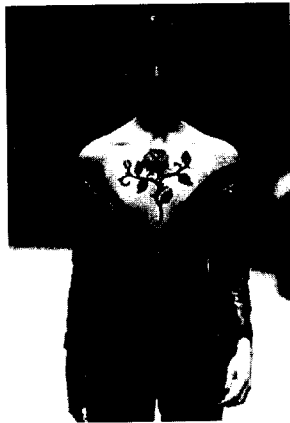
2) 에로티시즘(Eroticism)

현대 패션에서는 노출이 극대화되면서 노출을 위한 노출이 더욱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타투룩으로 드러나는 인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에로틱한 정서를 전달할 수 있으며, 간혹 선정적인 신체 부위가 타투에 의해 강조되기도 하고, 타투 모티프가 사용된 브리프나 스타킹 등을 통해 에로틱한 정서가 극대화되기도 한다. 애욕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그다지 에로

탁하지 못하나, 그 이미지를 환기하거나, 끌어들이거나, 암시하거나 더 나아가서 표현함으로써 에로틱한 것으로 변형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sup>32)</sup> 복식의 에로틱한 무드는 신체의 각 부위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는 타투룩을 통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인체의 선정적인 특정 부위를 인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에로틱함을 전달하려는 의도는 현대 복식 디자인에서 매우 보편화된 방법으로, 선정적인 신체 부위를 타투로 장식하여 이성의 관심을 얻으려는 타투 본연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한다.

남성의 인체에 비해 성적 매력을 내포하고 있는 신체 부위가 훨씬 넓고 다양한 여체에서 가슴은 오래 전부터 선정성이 짙은 신체 부위로 여겨졌으며, 복식에서도 끊임없는 노출과 은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림 11>에서 로메오 질리(Romeo Gigli)는 모델의 가슴에 커다란 꽃문양을 그려 넣음으로써, 꽃이 가지고 있는 선정성과 더불어 여체의 가슴이 가지는 에로틱한 정서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그림 11> Romeo Gigli  
(流行通信, N.390, '96, Jan., p.121)

### 3) 원시성(Primitivism)

타투, 상흔, 바디 페인팅 등과 같은 신체장식은 미에 대한 인간의 장식 욕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실체이다. 그리고, 현대 패션에서는 그것이 가지는 투박하고 거친 느낌이 복식에 원시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주된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타투룩을 통해 표현되는 원시적인 특성은 사용되는 타투의 모

티프에 의해 드러나기도 하며, 직접적인 바디 페인팅을 통해 유도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원시적 특성을 표현하는 타투룩에서는 전통적인 신체장식이 가지는 대담하고 야만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원시적인 신체장식이 텍스타일 모티프로 치환되거나, 이국적인 액세서리나 바디 페인팅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림 12>의 '94 S/S 작품에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Marithe & Francois Girbaud)는 원시 부족 상징 문양을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변형시켜 상의에 프린팅함으로써 원시적인 토속미를 전형적인 타투룩에 가깝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Marithe & Francois Girbaud  
(Collezioni Haute Couture, N.60, p.199)

### 4) 반미학(Grotesque)

'혐오감'과 '두려움'은 타투를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 상태이자 타투에 대한 가장 보편화된 인식이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타투룩에서는 '혐오스러운 타투 도안'이나 '신체 훼손의 이미지'에서 비롯되는 반미학적 정서들이 복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특히 신체의 인위적인 훼손을 보여주는 타투룩은 보는 이에게 실제의 타투잉 과정을 연상시켜 더욱 심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전달하므로 간혹 혐오스러운 타투 도안보다 더욱 그로테스크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알렉산더 맥퀸이 2000/2001 A/W에 발표한 <그림 13>의 작품은 모델의 얼굴에서 가슴까지 이르는 전체를 마치 일본식 타투와 같이 뻣뻣하게 채움

로써, 극적인 이국 정서와 반미학적 무드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바디 페인팅과 옷의 심한 명도 차에서 느껴지는 이질감과 전형적인 바디 테크닉을 통해 드러나는 야만성이 그로테스크한 무드를 더욱 심화시켜 전달하고 있다.



<그림 13> Alexander McQueen  
(Collections, 00/01 Haute Couture, Vol.30, p.26)

지금까지 살펴본 1990년 이후에 나타난 타투룩 패션의 표현 방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로 정리되었다.

<표 1> 1990년 이후 패션에 나타난 타투룩

발생 배경	표현 방법	표현 양식	미적 특성	대표적 디자이너
미의식의 변화	시스루 활용	시스루 직물의 자수, 프린트	에로티시즘 원시성	John Galliano, Alexander McQueen
에로티시즘의 부각	원시적 신체장식의 재현	상흔, 원시 부족 상징 문양	원시성	Valentino, Marithe&Francois Girbaud
이국정서의 도입	타투 패턴 활용	용, 대나무, 잉어 등 타투예술문양 프린트	이국정취	Jean Paul Gaultier, Alexander McQueen
스트리트 스타일의 대중화	스트리트 스타일의 타투 문양 응용	스트리트 스타일 타투 문양 프린트	반미학	Pam Hogg
	메이크업과 바디 페인팅	얼굴 및 신체의 직접적인 메이크업과 바디 페인팅	이국정취 에로티시즘 원시성	Jean Paul Gaultier, Alexander McQueen, Romeo Gigli

## V. 결 론

신체장식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가장 동적인 방법인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눈길을 끄는 타투는 오랜 세월 동안 수용과 거부의 끊임없는 반복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패션에서의 타투의 유행은 일본의 전위파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작되어,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세기 전환점에서의 복고적 무드를 타고 하나의 패션 트렌드로 등장하여 컬렉션을 통해 다양한 타투룩이 발표되었다.

1990년 이후의 작품을 중심으로 복식에 나타난 타투룩 패션의 표현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투룩 패션에서의 시스루 활용은 시스루 직물에 타투 문양을 도입함으로써 피부에 직접 타투를 새긴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인체가 가지는 에로티시즘과 타투의 원시성의 미적 특성을 함께 표현한다.

둘째, 원시적 신체장식의 재현은 '원시부족상징'이나 '신체장식'을 텍스타일로 재현한 것으로 원시적인 신체장식에서 비롯되는 원시적인 유희성과 자유로움을 전달한다.

셋째, 타투 패턴의 활용은 타투예술의 소재로 이

용되는 동양의 상징물이 복식의 모티프로 도입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상징물을 통한 동양적 이국정취를 표현한다.

넷째, 스트리트 스타일의 타투 문양 응용은 과거의 스트리트 스타일에서 보여지는 반항적·공격적 타투 문양을 복식의 모티프로 적용한 것으로 반미학을 보여준다.

다섯째, 메이크업과 바디 페인팅은 현대 타투의 확장된 개념으로 얼굴과 신체에 타투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데, 노출에 의한 에로티시즘과 타투가 가지는 이국정취, 그리고 직접적인 바디 테크닉에 의한 원시성이 함께 나타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타투룩은 새로운 영역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디자이너들의 창조적 노력과 재능의 결과인 동시에 시대 정신을 반영한 모드로서의 그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세기의 전환점에서 타투룩의 아방가르드한 표현 특성은 열린 패션을 지향하는 미래 패션 디자인의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소스로서 활용이 기대되며, 그 구체적인 활용 방법의 모색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1) Victoria Lautman, *The New Tattoo*, Abbeville Press, 1994, p.7
- 2) Catherine Grogard, *The Tattoo - Graffiti for the soul*, Sunburst Books, 1994, p.19
- 3) Victoria Lautman, *op.cit.*, p.8
- 4) Kenkyusha's *English-Japanese Dictionary For The General Reader*, Kenkyusha(研究社), 1989
- 5)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제12권), 동아출판사, 1988, p.390
-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8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405
- 7) 동아프라임 영한사전, 동아출판사, 1996
- 8) 배대균, *한국인의 문신*, 배신경정신과의원, 1990, p.5
- 9) *Encyclopaedia Britannica*(제11권),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94
- 10) Victoria Ebin 저, 임숙자 역, *신체장식(The Body Decorated)*, 경춘사, 1988, p.83
- 11) Alan Bruce Govenar, *Issues in the documentation of tattooing in the western world*,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The dissertation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the humanities, 1984, p.9
- 12) Karl Groning, *Decorated Skin - A World Survey of Body Art*, Thames and Hudson, 1997, pp.227-247
- 13) *FASHION* 전문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p.1997, p.1242
- 14) 복식사전, 라사라 교육개발원, 도서출판 라사라, 1991
- 15) 동아원색대백과사전(제12권), *op.cit.*, p.390
- 16) 현대인과 패션,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8, p.13
- 17) 동아원색대백과사전(제12권), *op.cit.*, p.391
- 18) *Elle Korea*(June), 1998, p.179
- 19) 김희숙·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pp.234-235
- 20) Catherine Grogard, *op.cit.*, p.20
- 21) Rufus C. Camphausen, *Return of the Tribal*, Park Street, 1997, p.10
- 22) *Victorian Lautman*, *op.cit.*, p.14
- 23) 김준태, *20세기 말과 지역문화*, 나남출판, 1997, p.244
- 24) 허정란,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대 석사학위 논문, 1997, pp.15-21
- 25) *Vogue Korea*(June), 1998, p.36
- 26)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7, p.284
- 27) 주영희, *크리스티앙 라크르와(Christian Lacroix)의 의상에 나타난 원시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16 No. 1, 1992, p.124
- 28)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 Cultural Studies in Fashion*, Routledge, 1994, p.17
- 29) 최정화·유영선, '현대 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복식(服飾)* 제 40호, 1998, p.161
- 30) Catherine Grogard, *op.cit.*, p.22
- 31) J. C. Cooper, *세계문화상징사전*, 도서출판 까치, 1994, p.26
- 32) 송윤하 엮음, *에로티시즘*, 도서출판 춘광, 1998, p.25